

# 한국 농인의 언어 사전 편찬에 있어서의 쟁점 연구

허 일 (한국재활복지대학 수화통역과)

===== < 요약 > =====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언어 사용 실체를 반영하는, 다양한 용도의 수화 사전 제작과 관련된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정 방식의 대안으로서의 수화 기술, 그리고 수화의 다양성, 수화 기록 방법, 수화의 표집 방법, 사전 제작에 필요한 전문 인력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농인의 언어’ 사전 제작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점을 정리하였고, 다양한 용도의 수화 사전 제작을 위해 필요한 고려점과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농인의 언어, 사전 편찬, 표준화

## I. 서론

사전의 용도는 다양하다. 사람들은 사전을 펼쳐 들 때, 그 뜻과 함께 특정 기준에 따라 나열되어 있는 많은 단어들을 보게 되고, 어떤 단어의 정의를 찾아 볼 수도 있으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문법적인 형태와 기능,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맞추어 단어를 어떻게 나열하는지, 철자를 어떻게 쓰는지, 유의어나 반의어는 없는지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에는 단어의 실제 사용을 엿볼 수 있는 인용문이 실려 있기도 하고, 단어의 뜻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사전은 해당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과 그 의미, 보통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즉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는지에 관한 전형적이고 풍부한 사용 예, 해당 단어가 주로 어떤 단어들과 주로 결합하는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을 때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수화 보급 및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많은 ‘수화 책’ 혹은 ‘수화 사전’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전들이 단어 모음집에 그치고 있고, 그것도 수화 단어를 모아 그 조어법과 의미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해당 한국어 단어를 어떤 수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손을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영어로 사전

을 뜻하는 'dictionary'라는 단어가 '말하는 방법'을 뜻하는 라틴어 'dictio'와 '단어 모음집'을 뜻하는 라틴어 'dictionarius'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현재 보급된 많은 수화 책 혹은 수화 사전들이 단어 모음집(그것도 수화 단어 모음집이 아니라 한국어 단어에 기초한 수화 번역 단어 모음집)이나 한국어 단어를 수화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한 정보들만을 담고 있다는 것은 농인의 언어인 수화를 통해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많은 농인들과 청인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으며,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 학습해야 하는 농인들과 청인들에게 이러한 수화 책 혹은 사전들은 오히려 언어 학습의 걸림돌과 농인의 언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와 같이 한정된 용도의 수화 사전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양한 용도의 수화 사전을 제작하고, 보다 나은 권위와 해박함, 엄밀함을 가지고 농인의 언어 사용을 담아낼 수 있는 '농인의 언어' 사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며, 어떤 어려움에 가로 막혀 답보 상태에 있는지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보다 나은 사전 제작을 위한 계획 수립에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수화 제작 관련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 II. 본론

### 1. 수화를 규정할 것인가? 기술할 것인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계획으로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 주관으로 사단법인 농아인 협회를 중심으로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추진 목적상 수화를 표준화하고, 규정 차원의 수화, 특히 규정 어휘들을 수화 사전 형태의 결과물로 제시하고, 이를 보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수화 책 혹은 수화 사전을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저자, 편찬자들은 주로, 한국에서 수화를 의사소통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농인들의 언어 사용을 기술(description)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어떤 수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차원에서, 즉 앞으로 이런 수화를 쓰고, 이런 수화는 쓰지 말자라는 규정(prescription)에 비중을 두고 수화 사전을 제작해 왔다. 이는 한국표준수화규정제정사업 추진 배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지역별로, 연령별로 서로 사용하는 수화가 다르고, 통일 되지 않아 의사소통에 종종 문제가 야기되었고, 교육에 관련된 수화 어휘가 많지 않고, 각 학교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달라 전학 전출시 학업에 어려움이 있고, 수화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수화통역사 자격증 관리와 시험 응시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직업 생활 측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수화가 서로 달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때문에 농

인과 청인 모두 표준화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표준화(standardization)한다는 것은 허용된 것 이외의 임의의 표현을 금지 혹은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의 표준화 과정은 해당 언어 공동체 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음운과 어휘, 구문 등 언어의 전 측면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Milroy와 Milroy(1999)에 따르면, 언어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최종 결과물(예, 표준 수화) 보다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 표준화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당 언어의 표준 형태를 선택하고, 보급, 유지, 성문화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보통, 언어 사용자들은 사람마다, 지역마다, 계층마다,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 사용을 보이는데, 지역 및 영향력 등에 따라 권력과 명성을 갖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선호되고, 이를 통해 특정 언어 형태가 보급되거나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 받게 된다.

더욱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문자의 사용은 특정 형태의 발음이나 어휘, 구문을 사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말하기에서보다 쓰기 맥락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표현보다는 한 가지의 표현을 배워 사용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문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 방언 표현을 적절한 표준 언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구어처럼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문헌들(교과서, 공식 문서, 종교 문서 등)을 통해 오랜 동안 보존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표준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또한 표준 언어로 인정된 특정 사람들의 언어가 법률, 과학 연구, 문학, 의학, 종교, 교육 등에서 선호되는 언어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해당 언어의 올바른 문장 구조와 올바른 철자법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이 단계에서 언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언어에서 사용하는 단어 목록들을 확인하고, 해당 표현의 용인된 형태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특히 철자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저장물이 생기게 된다. 이 단계에서 표준 형태의 사전과 문법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 단계의 결과물이 완전한 수준이라고 말하지는 않으며, 단지 일부 어려운 단어들과 작가 지망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구문이나 문법 구조를 다루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지곤 한다.

표준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되고, 자신이 언어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방언이란 표준 언어로부터 이탈된 종류의 언어를 말하는데,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방언이나 비표준어가 틀렸다고 확신을 갖게 되며, 특히 쓰기 맥락에서는 더더욱 그러 하다. 이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규범이 나타나고 자리 잡게 된다. 사전편찬자들과 문법학자들은 단어의 올바른 의미와 표현, 올바른 문장 형태를 기술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이 단계에 이르면 사전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부분의 언어 사용자들은 올바른 언어 사용의 잣대로 사전을 사용하게 된다. 이제 표준화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혹은 광범위한 읽고 쓰기 맥락에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의 형식

교육을 통해 언어를 배우고, 표준 형태의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문어가 언어를 대표하게 되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일탈이나 영성한 표현, 오류로 간주하게 된다(Johnston, 2003).

이와 같은 표준화의 정의와 단계(선택, 보급, 유지, 성문화, 규범 제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수화 사전 제작자들은 표준화를 최종 결과물만으로 이해하거나, 표준화를 위한 여러 단계들 중 최종 단계인 규범 제정 혹은 수화 규정(prescription)만을 표준화를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또한 수화 공동체 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언어의 다양한 측면에서 표준화를 시도하여야 하나, 짧은 시간에 어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 성격의 수화 단어들을 모은 책자나 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대부분의 수화 사전들이 언어학자가 아니라 주로 교사, 사회복지사, 종교 단체 구성원들에 의해 제작되었고, 이들이 이러한 작업을 한 이유가 특정 영역의 용어를 소개하고, 한국어 단어와 수화간의 대응을 조직화하여 수화 사용을 표준화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수화 사전들을 만들려고 할 때, 수화 어휘 표준화를 아주 중요시 여긴 이유는, 의도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사용과 표현 등의 수화의 여러 측면들을 통제 방식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우나, 어휘나 발음의 경우 어느 정도의 표준화 혹은 일치시키는 것이 오랜 시간을 두고 어떤 선호하는 수화를 사전에 기록하고, 이를 새로운 신참자들에게(농인이든, 청인이든) 가르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수화 사전들은 수화를 농인의 언어로서, 하나의 독립 언어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든, 수화가 한국어에서 파생된, 한국어를 손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양식만을 바꾼,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든 어휘를 표준화하겠다는 의도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수화를 잘 한다고 인정되거나, 농인과의 생활 경험이 많은 청인들(주로 특수학교 교사나 종교 모임 구성원들, 수화교육 강사 등)과, 주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농인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혹은 소집단을 이루어 수화 관련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물론 이들의 작업이 모두 사전의 정의에 부합되는 결과물들로 볼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결과물들이 특정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를 모아, 수화하는 법을 글로 설명하거나 그림 혹은 사진으로 제시한 것이 보통이었다.

대부분의 사전들이 단방향이고, 두 언어(한국어와 수화)를 사용했으며, 한국어 어휘 순으로 나열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화를 나열하였다. 이러한 사전들은 수화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하고, 상세한 전사 체계에 따라 기록을 하지는 않았으며, 수화 단어의 뜻은 보통 청인의 언어로 기술하였다. 단어의 나열은 주제 순으로 나열하거나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으며, 손모양이나 위치, 방향 중 주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나열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 및 기기의 보급으로 동영상 활용하여 CD-ROM이나 인터넷 웹 사이트 등에서 한국어 단어를 클릭하면 해당 수화를 동영상으로 보여 주는 사전도 나오고

있으나, 한국어를 단어 수준에서 수화로 번역 혹은 음역하기 위한 한국어→수화 사전 성격(단방향이고 두 언어를 사용한 사전)이어서 종이 매체를 이용한 기존의 사전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고, 수화로 농인과 의사소통할 때 기대하는 다양한 사전의 용도, 즉 대화 중에 본 수화가 무슨 뜻인지, 표준적으로는 어떻게 수화를 해야 하는지, 해당 수화를 어떤 때 쓰는지, 어느 때에는 절대로 안 쓰는지, 해당 수화를 흔히 잘못 사용하는 오용의 예가 무엇인지, 해당 수화는 주로 어떤 수화와 함께 쓰이는지, 해당 수화의 사용 빈도나 미묘한 의미 변화나 문법 기능 차이에 따라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화 어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제작을 표준화로 이해하고,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많은 단계를 규정에만 한정함으로써, 사전 본연의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전이 나오지 못하고, 수화의 표준화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농인의 언어 사용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전보다는 우선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전을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수화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한 연구 자료를 담은 사전들도 많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Crabtree & Powers, 2000). 표준 수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전도 필요하지만, 수화를 표준화하려는 목적에서만 사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의 용도는 다양하다. 또한 표준화를 위해서는 규정(prescription)도 필요하지만, 기술(description)도 중요하다.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을 대해 기술한 자료가 충분히 쌓여야 표준화를 위한 적절하고, 권위 있는 선택 및 보급, 유지, 엄밀하고 종합적인 성문화와 규범 제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서로 다른 수화

구어 사용자든 수화 사용자든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같은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의 모든 수준(어휘, 음운, 형태소, 구문)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 연령,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사회언어학적 변이라고 한다.

Gallaudet 대학교 언어학 및 통역학과에서는 ASL 사용을 대표하는 대규모 자료를 비디오 촬영하여 어휘 수준에서의 사회언어학적 변이를 연구하고자,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일곱 곳을 정하여 총 207 명의 ASL 사용자로부터 대표성 있는 언어 자료(corpus)를 모았다(Lucas, 2003). 이는 언어 구조와 사회 구조를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료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었는데, 이들 지역 모두에서는 ASL 사용자 공동체가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었고, 다섯 지역은 기숙제 농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

다.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 참여자들은 세 명에서 일곱 명까지 그룹을 이루어 함께 모였고, 해당 지역의 공동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농인이 이 모임을 주선하였다. 이 모임을 주선한 농인은 브로커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우선 연구자들이 없이 대략 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후에 각 그룹에서 2 명씩 차출하여 농인 연구자가 배경정보, 사회생활,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해 심층 면접하였다. 흑인 참여자의 경우, 흑인 연구자가 면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34 장의 그림을 보고 해당 그림이 나타내는 사물이나 행위에 해당하는 수화를 하였으며, 이렇게 유도된 수화 어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34개의 수화들 중 33 개에서 적어도 어휘 측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이체(異體)가 존재했고, 31개에서 세 가지 이상의 이체가, 28개에서 4 이상의 이체가, 21 개에서 적어도 5 가지 이상의 이체가, 10 개에서 6 가지 이상의 이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로 다른 이체마다 음운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수화 어휘의 차이는 네덜란드 수화에 대한 연구(Schermer, 2003)에서도 나타났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 네덜란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목록을 정리하여, 농 아동의 부모와 교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된 KOMVA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까지 이용 가능한 수화 사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 이형(variants)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
- 한 사람의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했다
- 표준 수화로 불려지는 수화들만으로 나열한 경우, 농인 공동체로부터 환영 받지 못했다
- 지역간 차이를 무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언어 정책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한 지역의 수화를 표준 언어 혹은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경우, 다른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표준 언어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농인 공동체 내에서도 국가 수화 사전을 만들어 보급하여도, 자기 지역의 수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KOMVA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오랜 동안 자신의 수화를 발전시켜 온 다섯 개 농학교를 중심으로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디오를 들고 2년 동안 다섯 지역을 돌면서 저녁마다 자원자들의 수화를 촬영하였다. 조사 결과, 600 개의 개념 중 166 개의 개념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화로 표현되고 있었고, 202 개의 개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수화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368개의 개념은 세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수화로 표현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 간의 거리 차와 어휘가 서로 다른 정도 간에는 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지역 내에서도 정보 제공자의 연령에 따

라 수화 어휘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농학교에서 사용하는 수화의 종류 및 의사소통 방법에 따라 어휘에 있어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수화에 있어서의 어휘 이체(lexical variation)의 문제는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수화자들이 서로 다른 수화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문제로서, 결국 표준화란 결국 이러한 현상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음운 유형의 문제는 같은 수화에 대해 서로 다른 수화자가 서로 다른 형태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현상으로서, 같은 수화에 대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손 모양이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Johnston(2003)은 수화의 경우 특정 지역의 수화자가 특정 손 모양 대신 다른 특정 손 모양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화에서 발음이나 형태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의 사투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변이를 줄여 나가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수화의 어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어휘를 표준화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왜 서로 다른 수화가 사용되는지 그 원인과 유형을 확인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어휘 변이(이체)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기본적인 의미 영역(예, 색깔, 가족 관계, 음식, 수 체계)에서 어휘 항목들 내에 유의미한 변이가 다양한 농인 공동체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런 어휘 변이의 경우 농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자연수화를 배우길 원하는 이방인들의 경우 더 큰 문제로 다가 오겠지만. 이러한 정도의 변이가 구어든, 문어든 주류 사회의 언어에서는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교육자나 정부에게는 주된 고민거리로 생각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화는 전체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공인한 표준으로서 어떤 수화를 사실 상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상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평가 절하를 받거나 무시된 종류의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항하게 되고, 언어학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이런 유형의 어휘 변이는 방언들 간에서보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수화가 함께 사용될 때 나타난다. 농인 공동체나 특정 지역의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수화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주류 언어, 특히 교육에서 사용되고 표준 문어에서 발견되는 단어와 개념들을 번역했을 때, 상응하는 수화들에 있어 유의미한 변이가 존재한다. 많은 수화편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수화의 표준화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측면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연 수화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는 지식이나 교육 영역의 경우 실제 상응하는 수화 단어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일 것이다. 교사들

이 이 문제에 자주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수화 사용자들은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고, 교사들이나 사전편찬자들에게 어휘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그럴만한 수화들을 제시하곤 한다. 이런 맥락에서 표준화는 언어 계획(language planning)을 의미하고, 이러한 어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수화를 창조하고,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농인 공동체 내에 주류 언어의 개념이나 단어에 상응해서, 번역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고, 다만 정보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음성 언어 연구법에 주로 의존해서 자료 수집 기법의 한계로 수집이 되지 못한 경우라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문제일 것이다. 연구자나 정보 제공자가 두 언어에 모두 능통하지 못하다면, 이 역시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휘 간격을 신조어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농인 공동체에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어떤 수화를 기록하고, 이 수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한다는 것은 수화편찬자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이와 다른 어휘나 음운 변이는 억압하려 함을 의미한다. 사전은 보통 수화를 표준화하는 주된 도구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의 농인 공동체의 수화 사용을 보고하는 묘사적인 사전이 먼저 나타나기 전에는 규정적인 방식으로 사전을 사용하는 시도는 오히려 온갖 고생만 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다양한 공동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화를 정확하게 보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과정과 결과물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사전들이 나오지 않으면, 사전을 통해 농인의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표준화한다는 것을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일일 될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서 사회언어학적 변이를 인식하고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물리적 환경과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음성 언어의 경우도 사전 제작자들은 지역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와, 필요하다면 다양한 발음 차이를 사전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발음이 더 존귀한 방언으로 대접을 받아 다른 지역의 어휘나 발음은 교양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아예 무시되거나 교양 없는 언어로 기록되곤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수화 경우도 당연히 변이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인 사전의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전이 모든 어휘 변이를 다 담아낼 수는 없기에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데, Lucas(2003)는 이 문제가 사전의 기능과 변이의 특성간의 근본적인 차이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표 1 참조).

사전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규정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특성상 변이는 표준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부분적으로 사전에서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언어 체계의 상태가 실제 언어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강화하고 확증하기도 한다. 언어 사용자들은 단어들 이 사전에 기록될 때 어떤 언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도 하며, 어느 정도는 책에 실린 단어들만이 그 언어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즉, 사전

에 없으니까, 그것은 단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Lucas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 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사전의 기능과 변이의 속성이 이 문제의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Lucas는 이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사전 편찬자들은 계속해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변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설명해 나가야 하며, 변이에 대한 설명은 단일 화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변이와 통합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사전 편찬자들이 선택을 해야만 하고, 표준화를 정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 전의 사회언어학적 기능(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언어의 상태를 강화하고 확증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마도 지속적으로 사전 제작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표 1] 사전의 기능과 변이의 특성

사전	변이
단어의 의미를 묘사하고,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기술하고,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려줌	정의에 의해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언어의 일부분이 변하는 방식
사용자에게 규정적인 표준 모델을 제공함	정의에 의해, 규정적인 표준 모델에서 출발 중중 언어 변화의 첫 단계를 나타냄
언어 체계의 상태가 실제 언어임을 확증하고 강화하며, 이러한 강화나 확증은 사전이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음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실제 언어는 모두 변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변이의 존재는 언어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고 확증한다.

출처: Lucas, 2003, p.338

### 3. 수화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한국 수화에는 문자가 없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수화에 문자가 없으며, 수화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적도 없다. 국제음성기호와 비슷한 전사 체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 문자로서 설계되고, 개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Johnston(2003)은 수화에 문자가 없는 이유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화에 문자가 없는 이유는 주류 사회의 구어 기록 방법이 농인들 사이에서는 문해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화를 기록하기 위한 문자 체계를 흥미 있어 하는 사람들은 언어학자들뿐이며, 충분한 교육을 받은 경우, 농인들은 보통 두 언어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 사회의 문자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까지 제시된 수화 기록 방법 모두가 수화를 기록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최근 30-40년 동안 많은 전사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전사(transcription)는 대량의 언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수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1960년 Stokoe의 수화 음성 표기법(sign phonetic/notation system)이 제안되기까지 체계적 언어 연구에 필요한 기호 체계가 없었으며, 그 이후로도 합의된 수화 기록 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화 표준화를 위한 노력과 사전 편찬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표준화에 있어 문자화는 표준화의 촉매제로서, 그리고 결과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언어의 표준 형태는 문자화를 통해 가장 완전하게 성취된다. 물론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언과 차이가 지속되고, 표준어와는 다른 발음, 어휘, 문법이 존재하고, 심지어 표준어 사용자조차도 실제로 해당 언어의 표준어에 맞추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언이나 지역간, 개인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비표준어의 경우 그 가치가 절하되고, 특히 쓰기 맥락에서의 이탈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

문해 혹은 문자의 존재는 표준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 문자화나 문해 없이는 언어의 표준 형태를 꿈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른다(Johnston, 2003).

문어 형태가 없는 구어를 표준화하는 과정은 엄밀하게 말해서 문자의 도움을 받아 표준화하는 과정과 같을 수는 없다. 문자가 없는 언어에 대해서는 해당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음성 언어인 경우 국제 음성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혹은 제2언어를 사용해서 해당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적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결과물로서는 해당 언어의 어휘를 보고한, 두 언어를 사용한 사전이 나오게 되는데, 인류학자, 언어학자 등이 자신들의 연구를 위해 이런 종류의 사전을 종종 만들어 내곤 한다. 대부분의 사전편찬자들은 해당 언어의 음운과 형태소를 반영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기록 방법을 제안하는데, 음성 언어만 존재하는 언어에 대해 사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교한 기록 체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자가 없는 언어에 대해 보고한다는 것은 새로 개발한 철자법을 통해 단어를 어떻게 적을지를 성문화하고, 심지어 규범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전에 포함될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목록에서 선택하고 생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어의 의미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일이며, 어떤 단어들을 특정 문법 단어 군에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자체가 성문화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표준화를 원하는 사회적·언어적 힘이 추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언어 사용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우며, 문자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회에서처럼 이러한 사전만으로 언어 사용을 표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Johnston(2003)은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사전을 통해 제안된 표준어가 교육 장면에서 교육

용 언어로서 사용되고, 의미 있고 기능적인 문해 도구로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표준화를 촉진하는데 사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항상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문자 없이 음성 언어만 존재하는 언어에서처럼 수화에 관한 모든 출판물들은 사실 수화를 어떤 수준에서 분석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수화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수화의 기본 구성 요소인 손 모양, 손의 방향, 위치, 움직임, 비수지 기호 수준에서 기록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어 번역 혹은 해석을 달아 한국어 단어로 통해 기록해 나가는 방법(glossing),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 글로 움직임과 멈춤을 설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선호되고 있으나, 다양한 용도의 수화 사전을 만드는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초상권과 비용의 문제,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려운 점 등이 해결될 필요가 있으며, 그림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수화 표현의 경우 초상권 문제가 없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농인의 언어가 手화 즉, 손에 모든 정보에 담겨 있다고 보거나,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담긴 시각 정보를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농인의 언어에 담긴 많은 정보들이 사라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음이나 형태소 수준에서 수화를 기록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국 수화의 경우 사전 수준에서 이를 시도한 자료는 없다. 물론 어느 한 방법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 수화를 소개하고 있는 책자나 사전들이 한정된 방법만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화를 기술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관찰·분석하고, 수화의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손 모양, 위치, 움직임, 얼굴과 자세에 담긴 정보 등)을 표현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해온 수화 표현 방법으로 대량의 수화 자료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 수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965년 수화 연구에서 음운 수준의 전사 체계가 제시된 이래(Stokoe et al., 1965), 이를 ASCII 문자만을 사용하여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수정한 Stokoe 전사 체계 ASCII 버전 등 수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Hoiting & Slobin, 2002). 이들 중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ignPhon	<a href="http://www.leidenuniv.nl/hil/sign-lang/signphon2.html">http://www.leidenuniv.nl/hil/sign-lang/signphon2.html</a>
Stokoe ASCII 버전	<a href="http://world.std.com/~mam/ASL.html">http://world.std.com/~mam/ASL.html</a>
HamNoSys	<a href="http://www.sign-lang.uni-hamburg.de/Projects/HamNoSys.html">http://www.sign-lang.uni-hamburg.de/Projects/HamNoSys.html</a>
SignWriting	<a href="http://www.SignWriting.org">http://www.SignWriting.org</a>
SignStream	<a href="http://www.bu.edu/asllrp/SignStream/">http://www.bu.edu/asllrp/SignStream/</a>
Berkeley 전사 체계	<a href="http://ihd.berkeley.edu/slobinpaper-transcription.pdf">http://ihd.berkeley.edu/slobinpaper-transcription.pdf</a>

#### 4. 수화의 표집

수화 사전 제작의 어려움들 중 하나는 누구의 수화를, 어떤 집단 혹은 공동체의 수화를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음성 언어에서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표집 방법의 한계에 의한 것이든 특정 방언이 권위 있는 방언으로 인정되어 표준어로 선택되고 보급되어, 올바른 언어 사용의 잣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권위 있는 방언은 공동체 내의 모든 사회 수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치된 존경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언어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잘 교육받은 사람들의 언어라는 지속적인 확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수화 사용자 공동체 내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수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Lucas & Valli, 1989)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선호하고, 가치를 두는 주목할 만한 종류의 자연 수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유일한 예외에 해당하는데, 갈로데나 NTID의 ASL은 그 특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에서 사용되고,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각자의 직업 영역에서 이 수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국어 사용자의 수화가 항상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수화 사용자 공동체에서는 나름대로 선호하는 종류의 수화가 존재해 왔는데, 주로 주류 언어에서, 특히 문어에서 강조하는 수화 형태인 경우가 많았다(Johnston, 2003).

더욱이 수화 사용자 공동체 내에 수화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고, 수화 사용 능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대부분의 농인들이 문해 능력이 뛰어난 주류 언어 사용자들과 함께 한가족으로 살고 있고, 함께 일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 세대간의 수화의 전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 등 때문에 지역간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간 차이, 개인간 차이도 크기 때문에 누구를 표집하여, 어떤 수화를 촬영하거나 기록해 나갈 것인가가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개인간 차이는 대부분의 자연 수화가 농인들의 교육 장면에서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점 때문에 쉽게 줄여 나갈 수 없는 차이이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일부 농인 공동체의 자연 수화가 교육 장면에서 농 아동의 교육을 위해 실제로 사용된 적은 있으나, 이 또한 몇 년 되지 않았다. 외국도 두 언어와 두 문화 속에서의 교육을 택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연 수화의 능숙도나 자연 수화를 얼마나 가르치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자연 수화를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자연 수화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표준 형태도 확인된 바 없는 상황에서

구어에서의 표준 형태와 유사하게 자연 수화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표준화 및 규정(prescription)을 위한 작업에서는 누구의 수화를 표집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대부분의 수화 사전들은 그 저자 혹은 제작자들이 수화 사전을 통해 수화를 표준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수화의 선택과 보급, 유지, 성문화, 규범 제정)을 하곤 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과정들이 문자가 없이 이루어졌고, 많은 수화 사전 제작자들이 수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헌들(문학 작품, 과학 문헌, 법률 문헌, 종교 문헌 등)이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화에 필요한 단계들을 시도하였고, 대부분의 농 아동들이 교육 장면에서 해당 수화를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되었기 때문에, 수화에 대한 정보 제공자 혹은 수화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 수화 사전이 갖는 권위와 엄밀함, 박식함, 영향력이 결정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기술(description)에 중점을 두고 누구의 수화를 표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화 사용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지역, 연령, 개인사 등의 수화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수집함으로써 이후에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수집한 수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할 때 중요한 설명 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나온 수화 책이나 수화 사전들이 수화 모델이나 정보 제공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러 측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수화를 표집할 때, 가급적이면 보다 큰 권위를 갖는 수화를 표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집하고자 하는 수화에 어느 정도의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모화자인가? 농인 가족 구성원인가? 농인 가족과 함께 수화로 의사소통하면서 자라난 사람인가? 수화자가 참여하는 수화 공동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가? 주기적으로 만나는가? 만남의 목적이 다양하고 분명한가?(어떤 결정 여부에 따라 생활이 달라지는가?) 등의 다양한 기준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어떤 수화를 선택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수화를 배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수화 표집과정에서 중요하다.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수화는 아닌가? 집에서 가족끼리만 사용하는 수화는 아닌가? 특정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수화나 특정 개인이 독특하게 음운 변이를 보인 경우는 배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화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약 5000 단어 수준에서 농학교에서 사용할 기본 어휘와 새로운 어휘에 대해서만 표준화를 시도한 STABOL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여 수화 자료 선택 기준을 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Schermer, 2003). 사전 제작의 목적과 수화 자료 수집 방법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엿볼 수 있는 예인 것 같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STABOL 프로젝트에서는 첫 번째 원칙으로 표준 수화는 농아동을 위한 학교와 취학전 프로그램, 농아동의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화를 의미하며, 표준 수화와 다른 수화는 농인 공동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수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농인 공동체와 많은 수화 연구자들 사이에서 표준화에 관한 아이디어가 강한 반대에 직면했으나, 많은 정부 및 교육부 관리, 정치인들은 대규모 재정 투자에 준하는 표준수화를 결과물로 요구했고, 공식적인 표준 수화가 없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수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논리를 펼치기에, 타협점으로 농 학교에서 사용할 새로운 수화와 기본 어휘에 대해서만 표준화하기로 원칙을 세운 것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대략 5000 개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도 제시하였다.

- 네덜란드어가 아니라 네덜란드 수화를 출발점으로 해서 개념 리스트를 만들 것
- CD-ROM 형태의 사전에 대해 내려진 선택을 표준으로 삼는다.
- 지화로 된 단어와 소리에 근거한 수화는 네덜란드 수화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화로 된 단어들 중 예외적으로 수화 단어처럼 쓰이는 “BLUE” 같은 단어는 수화로 간주한다.
- 가능한 한 서로 다른 개념에 대해 형태 측면에서 서로 다른 많은 수화를 채택하려고 노력한다
- 농인 문화와 수화의 어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 시킨다
- 전체 표준화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선택의 자유와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표준화를 위한 회의 자료를 선정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다섯 지역 모두에서 동일한 형태와 의미로 쓰이는 수화는 표준 수화로 간주 한다
- 한 지역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 특정 수화가 사용되고 있으나, 다른 네 지역에서는 그 개념에 대한 수화가 없다면, 수화가 있는 유일한 지역의 수화를 표준 수화로 간주 한다
-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는 수화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수화를 선택 한다
- 공식적인 수화 상황과 비공식적인 수화 상황, 성인 수화, 아동 수화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설명하여야한다
- 입 모양이나 지화, 소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수화보다는 수화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서로 다른 수화를 우선적으로 선택 한다

- 말과 함께 하는 수화와, 말과 관계없는 비수지 요소가 나타나는 수화 중 후자를 선택한다
- 형태론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수화를 선택한다
- 수화와 참조물간에 그 모습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수화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 5. 수화 사전 제작 인력의 전문성과 양성

사전 제작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전 제작의 목적을 정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하고, 보급을 책임지는 등의 일은 한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사전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배경, 수화 능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와 역량, 모화자 여부, 농인에 대한 이해 정도, 농인 공동체 참여 여부, 농인과의 생활 경험 유무와 질, 사전 제작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수화 사전과 수화 사전 제작자들에 대한 수화 사전 소비자들이나 농인들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편찬자 및 제작자가 갖는 권위 또한 사전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998년부터 시작된 Gallaudet 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나 선정 기준 등이 수화 사전 제작을 위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Van Cleve, 2003).

이 프로젝트에서는 초기에 몇 십 명의 대학 교수들과, ASL을 가르치고 있는 농인 모화자, 청인 수화통역사들을 대상으로 ASL 사전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한 후에, 제작 매니저, 편집자, 마케팅 담당자, 감독 등이 함께 모여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근본적인 이슈들에 대해 합의를 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사전 제작의 원칙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이 사전은 두 언어를 사용한 사전, 즉 번역을 위한 사전이어야 한다
- 수화를 수화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
- 영어 단어를 나열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화를 나열함
- 정의는 포함시키지 않음
- 수화 문자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접근법을 택함

이와 같이 원칙을 정한 주된 이유는 이 사전의 주 고객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고, 제2언어로서 ASL을 배우는 학생들을 삼았기 때문인데, 이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영어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나열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화를 제시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전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사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달렸다

고 보고, 신중하게 인선을 하였는데 인선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총책임자로는 ASL 능력, 갈로데 대학교에서의 충분한 재직 경력, 언어학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훈련, 이 프로젝트에 충분한 시간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ASL을 사용하는 미국 농인들 사이에서의 신망에 따라 사람을 선정하였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맡는데, 매니저가 중재해야 할 사람들은 소비자, 수화 모델, 책 판매 담당자, 예술가, 컴퓨터 전문가, 비디오 전문가 등이다.

수화 담당 책임자는 수화 모델 채용과 훈련을 담당하며, 실제 수화 촬영 과정에서 수화 모델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에는 오랜 동안 ASL 교사를 해왔고, 농인과 농 문화에 관한 전문 서적 저자이며, 농인인 사람이 뽑혔다.

소비자 집단에게는 이 사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의미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이 맡겨졌다. 이들은 사전에 포함될 영어 단어를 선정하며, 각 단어를 어떻게 수화로 표현할 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진행 과정에서 초기 의도와는 달리 기술적인 목적보다는 규정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화 모델의 경우 ASL 모화자이고, 갈로데 대학교 교육을 받고, 졸업했으며, 연령과 인종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하였는데, 모두 농인이었다.

Gallaudet 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 프로젝트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사전 제작을 위해 다양한 역량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가,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는가, 판매와 보급에 염두를 두고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제작에 사전 소비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는가 등이 권위 있고, 박식하며, 엄밀한 수화 사전의 탄생에 중요하다. 이는 수화 사전에 담긴 수화가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령에 따른 차이와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많은 지역과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화 사전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작에도 많은 사람들, 특히 더 많은 농인들이 참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수화를 잘 하는 몇몇 농인이나 청인, 수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 수화 책이나 사전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수화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 실체를 드러내고, 사전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용도의 사전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이미 출판된 많은 수화 책이나 사전들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수화 사전 제작에 참여하여야 하며, 어떤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수화 사전 제작에 필요한 인력이 체계적으로 교육 받고 양성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 III. 결론

지금까지 농인의 언어인 수화를 사전을 통해 정리하고, 그 사용 실체를 드러내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질문들과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다양한 용도의 수화(농인의 언어) 사전이 제작, 출판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단어마다 그에 대응하는 수화를 찾거나 새로 만들어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 방식의 사전이 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하기 위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화 어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제작을 표준화로 이해하고,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많은 단계를 뛰어넘어 규정에만 힘을 쏟기 보다는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을 대해 기술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표준화를 위한 적절하고, 권위 있는 선택 및 보급, 유지, 엄밀하고 종합적인 성문화와 규범 제정을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어떤 수화를 기록하고, 이 수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농인 공동체의 수화 사용에 정확한 조사와 사회언어학적 변인에 대한 인식과 설명이 필요하다. 다양한 수화 사용과 사회언어학적 변인에 대한 조사 없이 하나의 수화만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한 작업일 수 있으며, 지역 및 계층, 공동체 등에 따른 수화 사용의 실체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 제작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화에 관한 모든 출판물들은 수화를 어떤 수준에서 분석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수화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그림이나 사진, 한국어 설명을 통한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고, 수화의 기본 구성 요소인 손 모양, 손의 방향, 위치, 움직임, 비수지 기호 수준에서 기록하는 방법은 적용된 적은 없다. 수화 사전을 제작하는 목적과 수화를 기술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수화를 관찰·분석하고, 수화의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손 모양, 위치, 움직임, 얼굴과 자세에 담긴 정보 등)을 표현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넷째, 기술(description)에 중점을 두고 누구의 수화를 표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화 사용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지역, 연령, 개인사 등의 수화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수집함으로써 이후에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수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할 때 중요한 설명 변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수화를 표집할 때, 가급적이면 보다 큰 권위를 갖는 수화를 표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집하고자 하는 수화에 어느 정도의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떤 수화를 선택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수화를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화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전 제작을 위한 많은 인력이 양성되고 역할 분담이 적절히 되어야 한다. 사전 제작의 목적을 정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하고, 보급을 책임지는 등의 일은 한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사전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배경, 수화 능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와 역량, 모화자 여부, 농인에 대한 이해 정도,

농인 공동체 참여 여부, 농인과의 생활 경험 유무와 질, 사전 제작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수화 사전과 수화 사전 제작자들에 대한 수화 사전 소비자들이나 농인들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편찬자 및 제작자가 갖는 권위 또한 사전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앞에서 정리한 문제들 외에도 사전 제작과 관련하여, 농인의 언어 사용을 대표하는 수화 문들을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수화문치(corpus) 문제, 수화의 다양한 변이 문제, 수화 전사 전문가의 양성, 수화 비디오 촬영의 어려움, 수화 사전 마케팅, 수화 사전 제작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등 많은 고민거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결하여야만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질문 던지기과 답하기, 논의하기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수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보다 속시원한 주고받음과 나눔이 되고,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농인과 청인 모두가 서로를 더 정확히 알고, 함께 성장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깃들여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종류의 좋은 사전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Crabtree, M., & Powers, M. (2000). Introduction: Prescriptive vs. descriptive rules of grammar. In C. Valli & C. Lucas(Eds.),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pp. 223-225).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Hoiting, N., & Slobin, D. I. (2002). Transcription as a tool for understanding: The Berkeley transcription system for sign language research(BTS). In G. Morgan & B. Woll(Eds.), *Directions in sign language acquisition*(pp.55-76).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Johnston, T. (2003). Language standardization and sign language dictionaries. *Sign Language Studies*, 3(4), 431-468.
- Lucas, C. (2003). The role of variation in lexicography. *Sign Language Studies*, 3(3), 322-340.
- Lucas, C., & Valli, C. (1989). *Sociolinguistics of the deaf community*. San Diego: Academic.
- Milroy, J., & Milroy, L. (1999). *Authority in language: Investigating standard English*. London: Routledge.

- Schermer, T. (2003). From variant to standard: An overview of the standardization process of the lexicon of 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over two decades. *Sign Language Studies*, 3(4), 469-486.
- Stokoe, W. C.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Buffalo, NY: University of Buffalo Press.
- Stokoe, W. C., Casterline, D. C., & Croneberg, C. G. (1965). *A 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 on linguistic principles*. Washington, DC: Gallaudet College Press.
- Van Cleve, J. V. (2003). Lexicography and the university: Making the Gallaudet 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 *Sign Language Studies*, 3(4), 487-500.

<Abstract>

## Research on Development of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ies

Heo Il (Depar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he issue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ies are discussed.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touch on some of the major claims made in making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ies for deaf and hearing persons, and to narrow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my goal is to suggest guidelines and practices used by publishers, and to broaden the scope of the discussion on sign language dictionaries. Research implic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ies are discussed.

<Key Words> Dictionary of Korean sign language, normalization